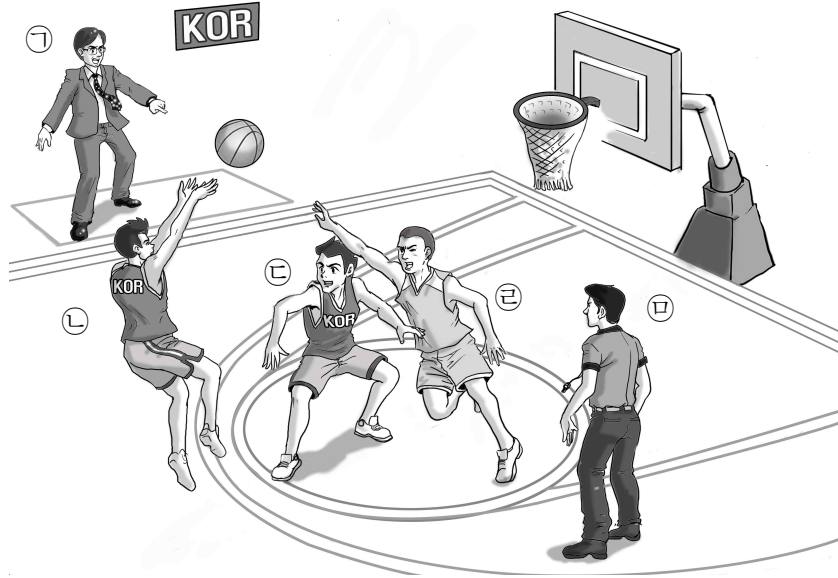


6. 그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추출한 요소로부터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	추출 요소	연상한 내용
㉠ 선수를 이끄는 감독	계획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지닌다. ①
㉡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는 공격수	도전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 ②
㉢ 공격수를 돕는 동료 선수	협조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지닌다. ③
㉣ 공격을 막으려는 상대 선수	노력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 경기 운영을 주관하는 심판	판단	주어진 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명확한 결정을 내린다. ⑤

7. 학생들을 위한 교내 공간에 게시할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기 ▶

- 내용 :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을 나타낼 것.
- 형식 : 대구와 대조를 활용할 것.

- ① 도서관 : 쾌적한 환경, 다양한 도서 자료. 도서관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 ② 체육관 : 운동은 즐겁게, 운동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뒷정리를 깨끗이 합시다.
- ③ 컴퓨터실 : 여기는 학습을 위한 곳입니다. 다른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맙시다.
- ④ 식당 : 당신이 버리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식량입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만 가져갑시다.
- ⑤ 과학실 : 실험에 이용하면 과학이 보이고, 장난에 이용하면 위험이 보입니다. 실험 도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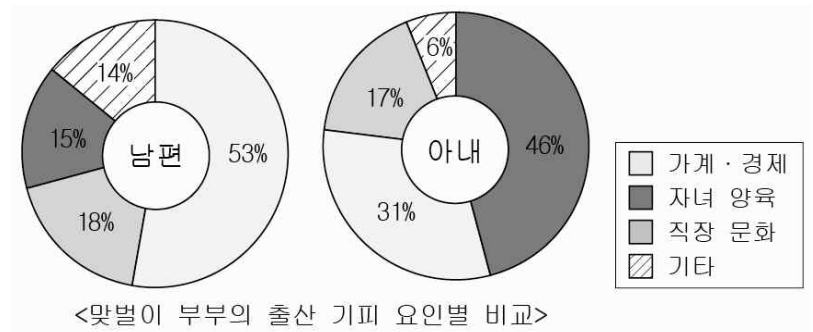
8.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가) 정부 보고서 자료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음.
 - 맞벌이 부부 비율의 변화
 - 27.4%(1990년) → 35.4%(2000년) → 40.1%(2009년)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 부담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나) 설문 자료



(다) 신문 기사 자료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 서비스로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뽑은 30대 이하 비중은 42.6%(전체 25.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가 발달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복지 분야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① (가) : 결혼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었으나,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미흡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② (나) :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자녀 양육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 ③ (가)+(나) :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임을 강조한다.
- ④ (가)+(다) :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회 복지 분야의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한다.
- ⑤ (가)+(나)+(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9.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장애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하여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 ㉠

II. 본론
1.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장애 요인 ㉡
가.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술의 미숙
나.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실 환경 구성 미흡
다. 지식 전달 위주의 일방적 학습에 대한 불만 ㉢

2.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방안
가. 학습자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 홍보
나. 디지털 교과서 사용 방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다.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확대

III. 결론
-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전망 ㉤

- ① ㉠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② ㉡에는 ‘II-2-가’를 고려하여 ‘학습자 건강에 대한 우려’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은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는 초중고 교사의 비율’을 자료로 제시한다.
- ⑤ ㉤은 논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노력 당부’로 수정한다.

10. <보기>는 자기소개서의 ‘진로 계획’이다.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저는 평소 아이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 그런데 중3 때 ‘아동 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관한 기획 기사를 읽고, 그런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소아 심리 치료 전문의가 되어 상처받은 아이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어야겠다고 ㉡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정신 상담’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우리나라 아동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 정돈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폭력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소아 심리 치료 전문의가 되려면 아동 보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 계속 이어 갈 생각입니다.

- ① ㉠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친다.
- ② ㉡은 문맥을 고려하여, ‘다짐했습니다’로 고친다.
- ③ ㉢은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리하고’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이어 갈’로 고친다.

11. 단어의 쓰임이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1) 그는 우리 당의 입(→대변인)이다.
(2) 기능공이 차(→차의 부품)에 기름을 칠했다.

(1)은 신체의 한 ‘부분’이 사람 ‘전체’를 나타내어,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예이며, (2)는 사물의 ‘전체’가 한 ‘부분’을 나타내어,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예이다.

- ① 인간은 빨만으로는 살 수 없다.
- ② 보는 눈이 많아서 조심스러웠다.
- ③ 꽃꽂이를 하다가 장미에 찢렸다.
- ④ 머릿수가 많아서 이길 수 있었다.
- ⑤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12. <보기>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3.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 댁은 ① 뿔마루[뿔마루]가 있는 아담한 한옥으로 마당에는 ② 나뭇잎[나뭇잎]이 무성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담 옆으로 난 ③ 새길[새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④ 넋가[넋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평평한 ⑤ 빨랫돌[빨래뜰]과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A]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B]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C]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나)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 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大)

날리는 엇디 살라 흐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大)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大)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大)

- 작자 미상, 「가시리」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색채어를 대조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대상을 부르며 화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4. (가)의 구조를 [A]~[C]로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A]와 [C]에서 가정한 상황은 [B]에서 '나'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 ㄴ. [A]에서 [B]로 연결되면서 '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가 변화한다.
- ㄷ. [B]의 상황은 [C]를 실현하기 위해 '나'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 ㄹ. [C]는 [A]와 대응되어 [A]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과의 거리감을 유발한다.
- ② ㉡은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과 관련된다.
- ③ ㉠과 ㉡은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드러난다.
- ④ ㉠과 ㉡은 모두 외부와의 단절에서 생성된 정서이다.
- ⑤ ㉠은 개인적 상황에서, ㉡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시에서 '황혼'은 종래의 '죽음'이나 '이별'이라는 관습적 상징이 아니라, 고독한 존재의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이다. 황혼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즉, 아침의 여명처럼 시작과 끝이 융합하는 시간이므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 ① '별', '수녀', '수인', '행상대', '토인'은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한 존재들을 뜻하는군.
- ② '골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은 '황혼' 때문이군.
- ③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황혼'과 하나 되어 아침의 여명을 기다리기 위함이군.
- ④ 화자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는 이유는 '황혼'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 ⑤ 화자가 '황혼'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겨 세상을 포용하려는 것은 황혼에 대한 관습적 상징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17. (가)의 화자가 (다)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입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아픔을 잊어야 합니다.
- ② 현실이 비록 힘들더라도 입과의 만남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 ③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당신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 ④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입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 ⑤ 당신의 슬픔과 입의 슬픔이 함께할 때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18.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리코'의 주체는 입으로, 화자가 애원하는 이유가 된다.
- ② '엇디 살라 호고'의 주체는 입을 떠나보내며 한탄하는 화자이다.
- ③ '잡스와 두어리마누'의 주체는 입으로, 입이 떠나는 원인이 된다.
- ④ '보내옵나니'의 주체는 화자로, 입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이다.
- ⑤ '도셔 요쇼셔'는 입이 행위의 주체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다는 의미로 '셀프 핸디캐핑(self-handicapping)'이라 부른다. 셀프 핸디캐핑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중요한 어떤 특성이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과제 수행을 방해할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그 불리한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시험 전날, 공부는 하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간 학생이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에게 들으라는 듯 자신이 어제 본 영화의 내용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심리학자인 아킨과 바움가드너는 셀프 핸디캐핑을 위치와 형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했다. 위치에 따른 분류는 불리한 조건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느냐 아니면 자신의 외부에서 찾느냐를 기준으로 셀프 핸디캐핑을 나누는 것이다. 즉, 약물이나 알코올의 섭취, 노력의 억제 등은 내적 셀프 핸디캐핑에, 불리한 수행 조건이나 곤란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외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한다.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기존의 불리한 조건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각각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과 주장적 셀프 핸디캐핑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셀프 핸디캐핑은 수행할 과제가 본인에게 중요할수록 일어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거나, 자존심 같은 성격적 특성이 두드러질 때도 셀프 핸디캐핑이 일어나기 쉽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셀프 핸디캐핑을 사용하는 것일까? 우선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두면 과제 수행에 실패했을 때는 물론이고 성공했을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제 수행에 실패했다면 불리한 조건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운 좋게 과제 수행에 성공했다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셀프 핸디캐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셀프 핸디캐핑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셀프 핸디캐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해서 당사자 앞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셀프 핸디캐핑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핸디캐핑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평계만 대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 즉, ㉠ 셀프 핸디캐핑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셀프 핸디캐핑'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사용한다.
- ②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③ 과제 수행의 실패 원인을 모호하게 한다.
- ④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 ⑤ 위치적 요인보다는 형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0. '셀프 핸디캐핑'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타인의 평가
- ② 평가의 공정성
- ③ 과제의 중요도
- ④ 개인의 성격적 특성
- ⑤ 과제 성공의 불확실성

2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며 운동을 소홀히 한 수영 선수 ○군은 경기에서 진 후 평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부모와 코치에게 이야기했다.
㉡	수험생 □군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학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다.

- 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은 '내적 셀프 핸디캐핑'의 예라고 볼 수 있군.
- ② 스스로 시합에서 우승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은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 ㉡는 '외적 셀프 핸디캐핑'의 예라고 볼 수 있군.
- ④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포기하는 것을 보니 ㉡는 '주장적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과 ㉡는 모두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핑계로 삼았군.

22. ㉠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담은?

- ① 빈 수레가 요란하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⑤ 내 돈 서 폰만 알고 남의 돈 칠 폰은 모른다.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79. 마당-대청

정숙과 옥희 마당을 횡단한다.

옥희 (대청으로 올라오며) 이 꽃 예쁘지?

정숙 응. 웬 꽃이니?

S#80. 안방

그들 들어오며

옥희 아저씨 안 돌아오셨우?

정숙 응.

옥희 엄마 말이지 말이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정숙 사랑 아저씨가?

옥희 응. 엄마 갖다주라구.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정숙 흠칫 놀란다. 그리고 짐짓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본다.

옥희 엄마 또 골났우?

정숙 골은?

옥희 꽃병에 물 넣어 올게.

하며 꽃병을 들고 문으로 나간다.

㉠ 꽃을 들고 냄새를 맡으며 곰곰이 생각하는 애절한 감정.

이윽고 옥희 꽃병에 물을 넣어가지고 들어온다.

정숙 옥희야! (하며 옥희의 두 손을 잡으며) 이 꽃 정말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주셨니?

옥희 응.

정숙 이런 걸 받아오면 못써!

옥희 왜 못쓰우?

정숙 못써!

옥희, 꽃병에 꽃을 꽂는다.

옥희의 소리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엄마가 이 꽃을 받고 것처럼 성을 낼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숙 옥희야!

옥희 응?

정숙 너 이 꽃 애기 아무 보구도 하지 마. 응?

옥희 왜 하지 마?

정숙 엄마가 하지 말라문 하지 마.

옥희 할머니한테두?

정숙 응.

하며 꽃병을 들고 와 피아노 위에 놓곤 짐짓 바라본다.

S#81. 달(밤)

휘황히 밝은 달.
피아노 소리 정감을 돋운다.

S#82. 사랑방

천사처럼 자고 있는 옥희.
그 자는 얼굴을 그리고 있는 선호.
안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선호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S#83. 안방

불도 켜지 않은 방.
창에서 흘러 들어오는 월광이 지금 ㉠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정숙의 언저리를 환히 비치고 있다. 항상 제자리에 놓여있던 죽은 남편의 ㉡ 사진이 자취를 감추었다. 정숙 나직이 노래를 부른다.

S#84. 사랑방

정숙의 ㉢ 노랫소리.
이를 듣고 있는 선호의 걱정된 얼굴.
피아노와 노랫소리는 차츰 고조되어 간다. 그러자 갑자기 피아노와 노랫소리 딱 멎는다.

S#85. 안방

피아노 위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정숙.
이때 밖에서 선호의 기침 소리.

선호 (E) 아주머니! 주무십니까?

소스라치듯 머리를 들며 눈물 자국을 훔치는 정숙.

선호 (E) 험!

정숙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간다.

S#86. 마당-대청

휘황히 밝은 달빛 아래 선호가 잠든 옥희를 안고 서 있다.
대청 끝까지 걸어 나와 이를 본 정숙, 어쩔 줄을 모른다.

정숙 아니 재가.....

선호 곤히 자는 걸 깨우기가 안돼서.....

정숙, 선호의 팔에서 옥희를 받아 안는다.
눈과 눈이 콧 부딪친다.
잠시 동안 서로의 시선은 피할 도리가 없다.
정숙 돌아서 ㉣ 안방으로 돌아간다.
지그시 보던 선호 돌아선다.

- 임희재 각색,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3.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79에서 S#80으로 넘어갈 때,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의 위치를 달리하여 촬영합시다.
- ② S#80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레이션을 활용합시다.
- ③ S#84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 ④ S#85에서는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기 위한 효과음을 활용합시다.
- ⑤ S#86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냉정한 어조로 대사를 처리합시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숙이 '사진'을 감추는 계기가 된다.
- ② ㉡: 정숙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이다.
- ③ ㉢: 정숙을 억압하는 현실적 제약을 상징한다.
- ④ ㉣: 선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⑤ ㉣: 정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공간이다.

2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연속적인 장면의 연결을 연속성 있게 만들거나, 연속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불연속의 상태로 만든 뒤 새로운 대상을 보여주는 것을 '컷 어웨이(cut away)'라고 한다. 가령, 물을 올리는 장면(S#1)과 물이 끓는 장면(S#3) 사이에 시계를 비추는 장면(S#2)을 삽입하여 시청자가 시간의 경과로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을 수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삽입되는 장면(S#2)이 컷 어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컷 어웨이'는 시·공간적 비약을 암시해 주는 기능이 있다.

- ① S#81 ② S#82 ③ S#83 ④ S#84 ⑤ S#85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을 가열하면 보통 100℃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하지만 물은 100℃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화될 수 있다. 압력이 낮은 산 위에서 물의 끓는점이 낮아져 밥이 설익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상태가 변한다. 그러나 특정 온도(임계온도)와 압력(임계압력)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과 압력을 가해도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물질이 되는데, 이를 ‘초임계유체’라 한다. 초임계유체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띠고 있어서 기체처럼 가벼워 확산이 잘 되고, 또 액체처럼 다른 물질을 잘 녹여 낸다. 뿐만 아니라 액체와 달리 점도와 표면장력이 낮아서 1nm(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보다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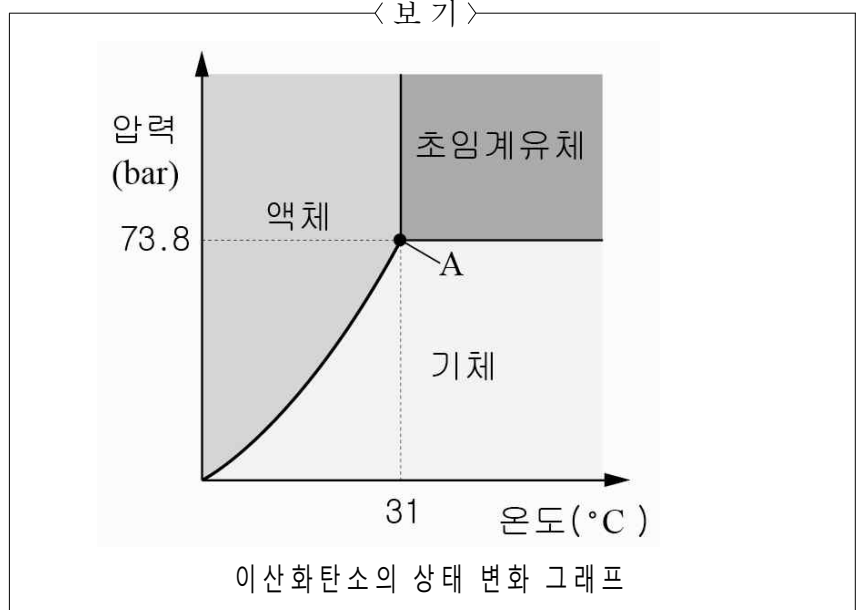
초임계유체의 이런 특성은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하거나 천연 화장품에 들어가는 식물 추출액을 뽑을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임계온도가 31℃, 임계압력이 73.8기압(bar*)인 초임계상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이것을 커피나 녹차, 참깨 등 추출하려는 물질에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물질의 미세 구멍에 침투해 원하는 성분만 녹여서 나온다. 또한 초임계상태인 이산화탄소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녹여 내는 정도(용해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산화탄소를 초임계상태로 만드는 걸까? 우선 이산화탄소는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이 낮아 다른 물질보다 초임계상태로 만들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카페인이나 참깨의 기름이 이산화탄소에 잘 녹기 때문이다. 소금이 물에는 잘 녹지만 기름에는 안 녹는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물질이 가지는 극성과 관련되는데, 물질은 분자구조에 따라 극성을 띠기도 하고, 띠지 않기도 한다. 극성이 있는 성분을 추출하고 싶으면 극성이 있는 물을 초임계상태로 만들어 쓰면 된다. 하지만 물은 임계온도가 374℃, 임계압력이 221기압이나 되기 때문에 물 대신에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알코올 같이 극성이 강한 물질을 섞어 극성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로 사용한다.

초임계유체는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일 외에도 건축 단열재, 폐수 정화 시설 등 활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물질을 초임계상태로 만들기 위해 임계압력까지 압력을 올리는 과정은 장비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원하는 물질을 녹여내기에 어떤 용매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추론할 수 있는 이론을 ㉠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 bar : 압력의 단위.

27. 위 글과 <보기>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도가 A보다 낮아지면 이산화탄소의 상태가 변한다.
- ② 온도와 압력을 A보다 높여도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 ③ 압력이 A보다 낮아지면 이산화탄소로 원하는 물질을 추출할 수 없다.
- ④ 온도와 압력을 A보다 낮추면 이산화탄소의 점도와 표면장력이 낮아진다.
- ⑤ 이산화탄소에 비해 물은 온도와 압력을 A보다 높여야 하므로 초임계상태로 만들기 어렵다.

26.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초임계유체의 개념 ㄴ. 초임계유체의 특성
 ㄷ. 초임계유체의 분자 구조 ㄹ. 초임계유체의 활용 범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8. [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물질의 극성 여부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결정된다.
- ② 물질의 극성에 따라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가 달라진다.
- ③ 용매의 분자구조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물질의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에 따라 분자구조가 달라진다.
- ⑤ 극성이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면 물질의 용해도가 낮아진다.

29.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정립(定立)하는
- ② 성립(成立)하는
- ③ 설립(設立)하는
- ④ 수립(樹立)하는
- ⑤ 건립(建立)하는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회는 구성원의 출신국이나 인종 등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다문화 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궁극적 지향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에는 (가) 차별 배제 모형, (나) 동화 모형, (다) 다문화 모형이 있다. 이 세 모형은 외국인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먼저 차별 배제 모형은 국가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모형이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과 결혼 이민자의 증대와 맞물려 점차 그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동화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모든 면이 주류 사회와 똑 같아져야 한다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그들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두 모형과 달리, 다문화 모형은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형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들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모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모형은 다시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 문화다원주의는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다. 이에 비해 보다 발달된 개념인 ㉡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류 사회 안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원주의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이중적 기준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와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주의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조직 내의 다양성을 강조하기만 하고,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에 극심한 혼란만 ㉢ 더하게 되어, 사회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적절한 단계에 맞추어 진행해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 목표를 다문화주의에 두고, 단·중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 목표와 구체적 사업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30.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 ① 다문화 모형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 ②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다문화 관련 정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④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⑤ 다문화 모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31. (가)~(다)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기 >

- ㄱ. A국은 이민자들이 A국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 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했다.
- ㄴ. B국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
- ㄷ. C국은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ㄴ	ㄱ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 ② ㉠은 ㉡과 달리 주류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 ③ ㉡은 ㉠과 달리 주류 사회와 외국인이나 이민자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 ④ ㉡은 ㉠에 비해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이다.
- ⑤ ㉠과 ㉡은 모두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추구한다.

3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것은 원액에 물을 더하여 만들었다.
- ② 날이 갈수록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
- ③ 동구 밖의 실버들이 푸른빛을 더하고 있다.
- ④ 부지런하기로 말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하다.
- ⑤ 그는 원장의 생각에 의견을 더하는 일이 없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십 년이니 바다가 솟제 산언덕과 들로 변해 있었다. 덕도도 이제 연륙(連陸)이 되고, 너른 전답이 생겨 살기 좋게 되었다더라는 소문을 들긴 들은 터였다. 그런데도 막상 밭을 디디고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스무 해 전까지만 하여도 나룻배로 건너곤 하였던 바다 한가운데엔 산언덕처럼 드높은 독이 막혀 있었다. 천관산 기슭과 덕도 큰산 발부리 사이로 썰물이 지기가 바쁘게 펼쳐지곤 하던 꺼먼 갯벌 밭은 그새 바둑판처럼 쪼개어진 채 김제 만경의 너른 들이 무색할 만큼 아득한 들판이 되어 있었다.

독 위에 선 채 그 아득한 들판을 바라보던 그는 회진 뒷산에서 흘러내린 자줏빛 그늘에 잠기고 있는 시퍼런 바닷물을 향해 돌아섰다. ㉠ 이 모든 게 변했다고 놀라고 있는 자기가 우스워 보여, 그는 아무렇게나 고개를 주억거리며 독을 건넜다. 아내와 함께 이 덕도를 등진 것이 벌써 이십 년 저쪽이요, 그 아내 죽은 지 어느덧 십 년 하고도 팔 년이며, 그때 핏덩어리이던 딸아이가 벌써 열아홉 살로 시집 갈 나이가 다 되어 있질 않는가.

작은 항구 도시같이 변창해 버린 회진 포구에서 막걸리를 거푸 두어 잔 걸친 때문으로, 가슴이 후끈 뜨거워져 있는 데다, 딸과 아내의 생각이 겹쳐지고, 거기에 또 이 땅이 바로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면서, 자기가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등에 업혀 온 이래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어진 곳이요, 또 그러한 중에 그 아내와 정이 맺어진 곳이라는 감회가 가슴 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자, 가슴속에 웅어리진 주먹 같은 멍울이 들썩거리고 금방 숨이 가빠지는 듯했다. 그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배때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러야 했다.

덕산 마을을 지나 하늘재 큰산 기슭을 오르면서부터,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구어진 소리를, 카랑카랑한 축기가 늪 속에 짙겨거리는 물기처럼 배어있는 목청을 통해 토해 놓고 있었다.

[A] 앞산도 첩첩하고
 ↳ 뒷산도 첩첩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노래를 잘 불렀던 머슴 그(오달병)는 주인집 딸이었던 장례를 좋아하지만, 그녀와 좋지 않은 소문이 돌리자 주인집 어른에게 오히려 매를 맞고 쫓겨난다. 이후 장례는 시집을 가고, 달병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장례 남편이 전쟁 중에 죽어서 장례가 친정에 다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달병은 마음이 설렌다.

“나 장례한테 꼭 할 말 있소. 오늘 저녁에 좀 만납시다. 여그 건장막 안으로..... 밥 먹고 조간만 나오시오.”

“멋하게 만나라우.”

통명스럽게 말하며 장례는 땅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날 밤 장례는 그가 지정한 건장막 속으로 나와 주었다. 그들은 헌 밭장 위에 나란히 앉았다. ㉡ 장례의 몸에서는, 낮에 건장 앞에서 만났을 때 말할 수 없었던 구리무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죄 될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빠와 달병이가 함께 군대엘 갔지만, 오빠보다는 달병이 쪽 생각만 했었다는 말을 했다. ㉢ 요즘, 어머니 아버지가 부쩍 서두르기 때문에 중매쟁이들이 간혹 드나들곤 하는데, 모두가 귀찮기만 하다는 말도 했다.

“나한테 시집 올 생각 없소?”

그의 말에 장례는 고개를 저었다. ㉣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헌 각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장례의 목이 메어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는 장례의 손을 잡았다. 끌어안았다. 장례는 그가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나는 강콩 장례하고 살어사 쓰겠소.”

하면서 그는 자기의 굳은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들은 밤 붓짐을 쫓고, 그리고 이 재를 넘어 줄행랑을 쳤다. 청도로 들어가서, 자기는 머슴살이를 했고, 장례는 이집 저집을 돌며 안일을 거들어 주며 두 해를 지냈다. 그런 대로 네 해 동안만 더 그 짓을 하고는 살림을 차리자 했다. 한데 그 사이 ‘웬수’가 되려고 그랬던지 장례는 배가 불러 버렸고, 그와 장례가 함께 서른 살 되던 해 늦은 겨울 들어 몸을 풀었다. 한데 남의 집 헛간방, 불도 지피지 않는 얼음방의 누더기 속에서, 그가 김을 뜯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몸을 푼 장례는 뱃속에 찬바람이 들었던지, 몸을 푼 이튿날부터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그런지 닳새를 못 넘기고 눈을 감아 버렸다. 그로부터 심봉사가 심청이를 키우듯 키워 온 딸이었고, 그런 딸이기 때문에 ㉤ 그는 머슴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딸을 기어이 국민학교엘 보내 눈을 띄워 주었었다. 했는데, 이제야 열아홉 살 나는 딸이 광주라던가 서울 어디라던가에서 온 하모니카장이를 따라 밤 붓짐을 쫓아다니고 나가 버린 것이었다.

딸아이가 잡히기만 하면, 그 아이를 피어 간 놈을 찾아, 목을 비틀어 죽여 놓고 말겠다고 이를 갈며, 그는 나무 그늘에 앉은 채 솔숲 사이로 뚫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 그의 눈에 아내의 하얀 얼굴이, 영락없이 그 하얀 얼굴을 빼어다 박은 듯한 딸아이의 얼굴과 함께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후끈 뜨거워지면서 답답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끼고 솔숲 사이로 앞산을 바라보았다. 산기슭의 보리밭에 번들거리는 푸른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웅어리져 있던 주먹 같은 덩어리가 숨을 막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탁하고 끈적끈적한 듯하면서도 카랑카랑하게 맑은 데가 있는 소리를 빼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모습은 소나무 숲의 그늘에 묻히고 있었는데, 그가 뺨 소리의 한 가닥은, 바야흐로 어우러지고 있는 오월의 신록 속의 자줏빛 그늘 사이를 지나 청청 높은 하늘을 향해 사위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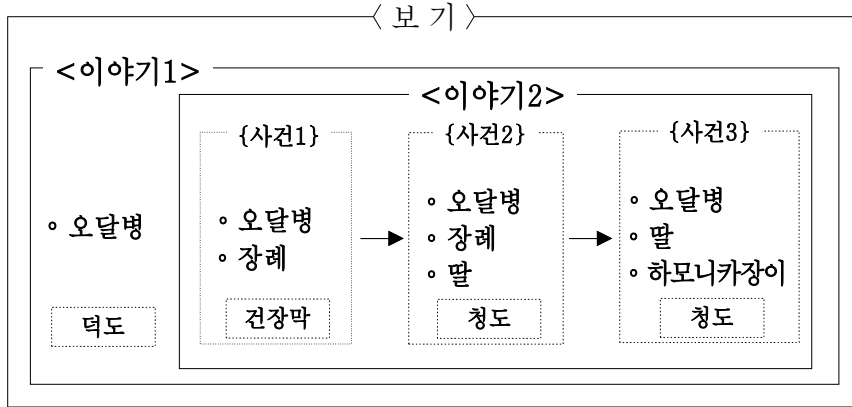
[B] 앞산도 첩첩하고
 ↳ 뒷산도 첩첩한다.....

- 한승원, 「앞산도 첩첩하고」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삽표를 사용하여 연속성 있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 시점에 변화를 주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③ 인물의 대화에 방언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⑤ 작품의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 내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5.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야기1>로 보아 오랜만에 덕도를 찾아온 오달병은 장례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야기2>의 {사건1}에서는 오달병과 장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③ <이야기2>의 {사건2}에서는 딸로 인해 장례가 죽게 된 사연이 드러나 있다.
- ④ <이야기2>의 {사건3}에서는 오달병과 하모니카장이의 외적 갈등으로 딸이 오달병의 곁을 떠나게 된다.
- ⑤ <이야기1>의 덕도에서 오달병은 <이야기2>의 {사건1}~{사건3}을 회상하고 있다.

36.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와 [B]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 이 소설은 오달병의 인생을 중심으로 그의 아내 장례의 운명, 그리고 그의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하니……’라는 소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대하는 운명을 생각하며 느끼게 된 감정을 노래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 ① [A]가 딸의 운명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것이라면, [B]는 장례의 운명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것이다.
- ② [A]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막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였다면, [B]는 딸의 기구한 운명을 막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 ③ [A]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노래였다면, [B]는 이를 해소하면서 느낀 안도감을 표출하기 위해 부른 노래이다.
- ④ [A]와 [B]는 모두 한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뜻에 따라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 ⑤ [A]와 [B]는 모두 딸과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되풀이되는 가족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이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오달병의 자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 ② ㉡ : 단장을 하고 나온 장례의 모습에서 오달병에 대한 호감이 드러난다.
- ③ ㉢ : 자신을 귀찮게 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 ④ ㉣ :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오달병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⑤ ㉤ :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성을 다해 딸을 길렀음이 드러난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개의 경우 준말은 본딤말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본딤말에서 음절수가 줄어서 준말이 형성된 것이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딤말과 준말이 전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준말이 되는 과정에서 통사론적, 형태론적 변화를 겪거나 준말로 굳어져 쓰이면서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사론적 변화란 준말이 문장에서 쓰일 때, 어울려 쓸 수 있는 조사가 제한되거나 본딤말과 달리 특정한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ㄱ. 흰옷이라 {더러움, 더럽}을 잘 탄다.
 ㄴ. 그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 *더럽}에 오염되었다.
 ㄷ. 옷이 {더러움, *더럽}. (*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1ㄱ)에서 ‘더러움’과 ‘더럽’이 조사 ‘을’과 결합한 형태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ㄴ)의 경우처럼 조사 ‘에’와 결합할 때는 ‘더러움’만 가능하고 ‘더럽’은 쓰이지 않는다. 또 서술어로 기능하는 (1ㄷ)의 경우에도 ‘더러움’만 가능하고 ‘더럽’은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문장에서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지,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본딤말과 준말의 쓰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형태론적 변화는 본딤말일 때와 형태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즉,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쓰이던 말이 준말이 되면서 의존적인 속성을 갖는 말로 변하는 경우이다.

- (2) 어제/ *엇, 어제저녁/엇저녁

(2)에서 ‘어제’가 ‘엇’과 같이 준말의 형태로 쓰일 때, 본딤말 ‘어제’는 자립형태소임에 비해, ‘엇’은 자립하여 쓸 수 없는 의존형태소의 성격을 갖게 되어 합성어를 이룰 때만 쓰인다.

또한 ㉠ 준말 중에는 본딤말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 새로운 단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3) ㄱ. 너와 나는 같지 않다.
 ㄴ. 철수의 행동이 너무 같잖다.
 ㄷ. 그런 {같잖은/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위 예문에서 (3ㄴ)의 ‘같잖다’는 ‘같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지만 (3ㄱ)의 ‘같지 않다’와 의미가 다르다. 즉, ‘동일하지 않다’는 뜻의 ‘같지 않다’가 ‘하는 것이 꼴사납다’는 뜻의 ‘같잖다’로 쓰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같잖다’가 (3ㄷ)의 ‘같잖은’의 꼴로 활용되면 ‘생각하거나 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3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준말의 생성 과정
- ② 준말의 단어 결합 방식
- ③ 본딤말과 준말의 의미 차이
- ④ 본딤말과 준말이 쓰이는 환경
- ⑤ 준말이 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

3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수업 시간에 {부끄러움/부끄럼}을 무릅쓰고 손을 들었다.
 ㄴ. 친구들에게 몹시 {부끄러움/ *부끄럼}.
 ㄷ. 소나기/ *소낙, 소나기구름/소낙구름

- ① ㄱ을 통해 본딤말과 준말이 동일한 환경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ㄴ의 ‘부끄럼’도 ‘더럼’과 같이 준말이 되면 서술어의 자리에서 쓰일 수 없다.
- ③ ㄷ의 ‘소낙’도 ‘엇’과 같이 합성어를 이룰 때만 사용된다.
- ④ ㄴ의 ‘부끄럼’과 ㄷ의 ‘소낙’은 자립성이 있는 말이 의존적인 속성을 지닌 말로 변한 경우이다.
- ⑤ ㄱ~ㄷ을 통해, 본딤말이 준말이 될 때 모두 동일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0. 괄호 안은 밑줄 친 단어의 본딤말이다.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오랜만(←오래간만)에 친구들과 만나 영화를 보았다.
- ② 이제 잡담을 멈추고 학급 회의에 쭙(←조금) 집중합시다.
- ③ 저녁놀(←저녁노을)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멋져 보였다.
- ④ 지금이라도 서둘러(←서두르면) 출발 시각에는 늦지 않을 것이다.
- ⑤ 막대(←막대기)를 들고 사정없이 휘저었으나 아무 것도 걸리지 않았다.

[41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몇 년이 지나자 도적 황소와 비계 등이 군사 3만인을 모아 여러 현(縣)들을 쳐 함몰시켰다. 매년 조정에서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토벌하였지만 이기지 못했다. 마침내 황제가 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보내어 그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치원이 황소 적중에 이르러 그들과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다만 한 폭의 ㉠시를 지어 적 우두머리에게 보내니 적들이 마침내 항복하였다.

이에 치원이 괴수를 사로잡아 오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식읍을 더 봉해주고, 그 위에 또 황금 만 냥을 주는 등 황제의 은총이 각별하여 다른 신하들은 미칠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大臣)들이 그의 어짊과 능력을 질투하여 무수히 참언하길,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치원을 남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음식을 일체 끊어버렸다.

치원은 일찍이 늙은 할머니가 주었던 장을 담은 솜에 이슬을 받아먹고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황제는 치원이 죽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사람을 시켜 불러 보게 하였다. 치원이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리고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하자, 사자(使者)는 돌아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고하였다. 이에 모든 대신들이 조롱하며 말했다.

“치원이 소국에서 조금 빼어나 중국에 와서는 온갖 수단으로 임금을 속이고 요행히도 벼슬자리를 얻어 세력을 믿고 사람을 속이더니 이제 도리어 재앙을 받아 굶어 죽게 되었구나.”

마침 안남국 사자가 공물을 바치려 당(唐)으로 가는 길에 치원이 유배 살고 있는 섬을 지나는데, 문득 섬 위에 어떤 유생이 승(僧)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고, 또 선녀 수십 명이 나열하여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사자가 배를 멈추고 섬에 올라가 알현한 뒤에 유생에게 시를 청하니, 그 유생이 시를 지어 주면서 말했다.

“삼가 잃어버리지 마시오.”

이에 사자가 절을 올리고 떠났다.

안남국 사자가 당에 이르러 그 시를 황제에게 바치자, 황제가 그것을 보더니 묻기를,

“이는 누가 지은 것이요?”

“신이 남해의 섬을 지나오는데 섬 위에 천녀(天女) 수십 명이 단란하게 노래하고, 그 가운데 어떤 유생이 승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시를 지어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말하길,

“이 ㉡시에 담긴 뜻을 보니 아무래도 치원이 지은 시 같다. 그러나 음식을 3개월간이나 끊었는데 치원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심히 괴이하도다.”

하고, 사람을 시켜 다시 치원을 부르게 하였다. 치원이 큰 소리로 대답하길,

“너는 무엇 하는 자인데 함부로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며 꾸짖기를 마지않았다. 사자가 돌아와 아뢰기를,

“치원이 비단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황제가 또 사자에게 명하길,

“치원을 불러오도록 해라.”

하니, 사자가 명을 받들고 낙양의 대궐로 치원을 맞아들였다.

황제가 거짓으로 말하길,

“경이 밖에 3개월을 머물면서도 어찌 한 번도 꿈에 보지 않았소.”

하고 이어서 말했다.

[가] “하늘 밑 어느 곳이든 왕토(王土) 아닌 곳 없고, 온 천하 누구든 왕의 신하 아닌 자 없소. 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대는 비록 신라 사람이지만 신라 또한 나의 땅이니 그대 또한 나의 신하인 것이오. 그런데 나의 사자를 꾸짖은 것은 무엇 때문이오?”

치원이 한 일자(一字)를 공중에 쓰고 그 위에 뛰어올라 말하길, “이곳 또한 폐하의 땅입니까?”

하니, 황제가 크게 놀라 용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치원이 황제에게 말하길,

“폐하는 소인들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신으로 하여금 거듭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이제 저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소매에서 돼지 저 자(猪字)를 꺼내어 땅에 던지니 그것이 즉시 푸른 사자로 변했다. 치원이 드디어 그 사자를 타고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치원이 신라의 경내에 이르러 사람들이 시냇가에 모여 노는 것을 보고 한 사람에게 물으니 그가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나와 노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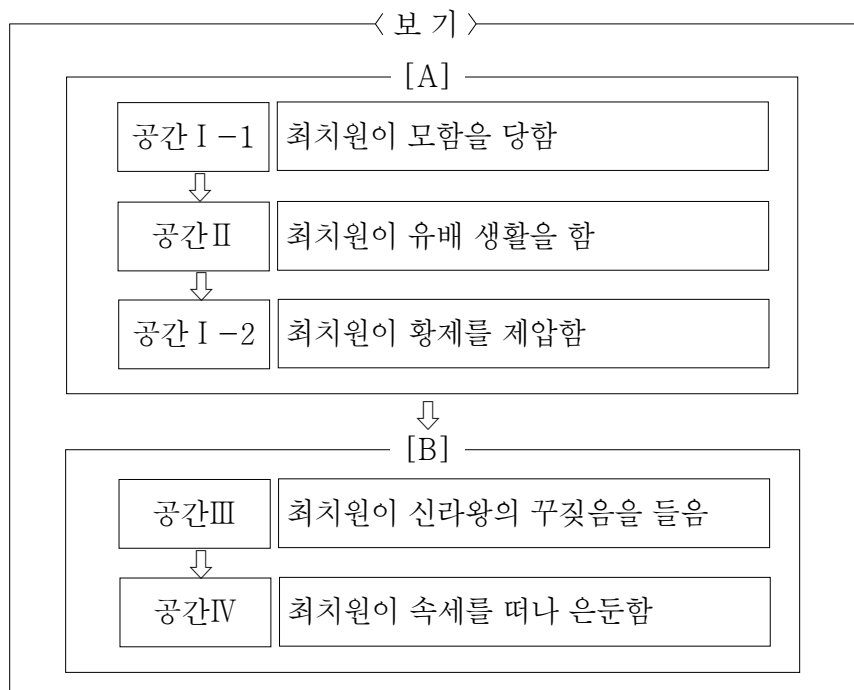
치원이 그 말을 믿고 가서 보니 사냥꾼들이었다. 치원이 계속 길을 가 동문 밖에 이르니 마침 신라왕이 나와 놀다가 치원을 보고는, 대국에서 미적거리며 놀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하여 사람을 시켜 치원을 포박하도록 하고 심하게 꾸짖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너의 공이 크기 때문에 차마 죄를 가하지 않는 것이니, 너는 지금 이후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치원은 마침내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41. 위 글의 공간과 사건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 I-1과 공간 III은 최치원이 시련을 겪는 공간이다.
- ② 공간 II에서 최치원의 신비로운 면모가 부각된다.
- ③ 공간 I-2와 공간 III에서는 상대에 대한 최치원의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 ④ 공간 II와 공간 IV는 최치원이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다.
- ⑤ 공간 [A]와 공간 [B]에서의 사건은 군신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킨다.
- ② ㉠, ㉡은 모두 주인공의 정치적 포부를 좌절시킨다.
- ③ ㉠은 ㉡과 달리 자발적 동기에서 창작되었다.
- ④ ㉡은 ㉠과 달리 주인공의 뛰어난 문장력을 전제로 한다.
- ⑤ ㉠은 설득의 의도를, ㉡은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고운전」의 창작 연대로 추정되는 17세기 전반기는 임진왜란 때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군사에게 온갖 고통을 받던 시기이다. 이때 싹트게 된 서민의 역사의식은 「최고운전」에 반영되어, 그러한 민족적인 수모를 최치원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서민의 소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 이 소설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형식적 관계와 내용적 관계가 반대로 그려져 있다.

- ① 최치원이 중국 황제를 굴복시킨 사건은 서민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
- ② 최치원이 중국에서 관리로 등용된 모습에서 당대 우리 민족에게 싹튼 서민의 역사의식을 가늠할 수 있어.
- ③ 최치원이 중국 황제를 대상으로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은 당대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었을 거야.
- ④ 중국 황제보다 최치원이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강자와 약자의 형식적 관계와 내용적 관계가 반대로 그려진 경우야.
- ⑤ 최치원을 대하는 중국 황제와 대신들의 모습에서 당시 우리 민족이 명나라 군사로부터 받은 민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

44. [가]에 나타난 황제의 태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안하무인(眼下無人)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감탄고토(甘呑苦吐)
- ④ 구밀복검(口蜜腹劍)
- ⑤ 반신반의(半信半疑)

이와 같은 데이터 조각들을 목록화하는 것을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을 배열하는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색인어에 번호를 붙이는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위의 인용문을 '1=ask, 2=what, 3=your, 4=country, 5=can, 6=do, 7=for, 8=you'로 목록화하여 '1 not 2 3 4 5 6 7 8. 1 2 8 5 6 7 3 4.'로 표시할 수 있다. 결국, 파일을 압축하는 핵심 원리는 파일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시스템을 안다면 사전과 숫자 패턴을 이용해서 원래의 문장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실제로 공간이 얼마나 절약된 것일까? '1 not 2 3 4 5 6 7 8. 1 2 8 5 6 7 3 4.'는 확실히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보다 짧다. 그러나 이 때, 파일과 마찬가지로 사전도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위 인용문은 79유닛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압축된 문장(스페이스를 포함해서)은 35유닛을 차지하고 사전(단어와 숫자) 역시 37유닛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크기는 72유닛이 되어서 파일의 크기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 압축 프로그램으로 케네디 연설문 전체를 모두 압축하면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계속 표제어가 추가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긴 텍스트 문서에는 중복되는 패턴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텍스트 문서를 압축하면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줄일 수 있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일을 압축하려면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 ② 스페이스와 마침표도 문자와 마찬가지로 유닛에 포함된다.
- ③ 사전에 표제어가 계속 추가될수록 파일의 효율적인 체계화가 어려워진다.
- ④ 단어가 두 번씩 사용되고 있다면 문장의 약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 ⑤ 데이터 조각을 목록화하는 사전은 색인어에 번호를 붙이는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다.

49. <보기>의 문장을 압축할 경우 그 표시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오는 세월이 있고 가는 인생이 있다.
가는 인생이 있으면 오는 세월이 있다.
- 위의 인용문은 '1=오는 2=세월이 3=가는 4=인생이 5=있다'로 목록화할 수 있다.

- ① 1 2 있고 3 4 5. 3 2 있으면 1 4 5.
- ② 1 2 있고 3 4 5. 3 2 있으면 5 1 4.
- ③ 1 2 있고 3 4 5. 3 4 있으면 2 5 1.
- ④ 1 2 있고 3 4 5. 3 4 있으면 5 1 2.
- ⑤ 1 2 있고 3 4 5. 3 4 있으면 1 2 5.

50. ㉠의 원리와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잎 표면에 있는 털과 돌기들은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공처럼 동글동글 말려서 구르게 한다.
- ②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은 음식량도 줄여야 하지만, 운동을 통해 체내의 지방을 분산해야 한다.
- ③ 수영장에 갈 때 가방 속의 부피를 줄이려고 튜브의 바람을 제거했다가 다시 바람을 불어서 사용한다.
- ④ 음식이 너무 짜서 먹기가 곤란할 경우, 음식 속에 있는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음식에 물을 넣는다.
- ⑤ 악곡의 반복을 지시하는 기호인 도돌이표를 사용하면 반복되는 같은 악곡을 다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